

## 백석 소설 「그 모와 아들」 연구

남 지 현\*

### 요 약

이 연구는 백석의 첫 번째 단편 소설인 「그 모와 아들」에 나타난 현실 인식과 주제의식을 탐구하였다. 백석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단편소설로 등단한 이후 시뿐만 아니라 단편소설과 수필, 동화시, 번역, 평론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남겼다. 특히 백석의 초기 작품들은 대부분 소설 장르에 집중되어 있다. 그 가운데 「그 모와 아들」은 백석 문학의 첫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문학 수업을 받기 전 발표한 유일한 작품이다. 또한 「그 모와 아들」은 몰화론적인 환상성이 가미된 다른 소설들과 달리 현실주의 계열의 작품이다. 따라서 시인 백석이 당대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현실 그 이상의 서사적 의미를 만들 어냈는지 가능할 수 있게 해 준다. 「그 모와 아들」에는 남아선호사상이나 가부장적 가치관과 같은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그것을 거스르는 인간 욕망의 분출과 소멸이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이 좌절된 인간이 다시 전통적인 질서 속으로 돌아와 남은 생을 이어가는 모습 또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서사의 후반부는 면면하게 이어지는 삶의 본질을 되새기게 하며 작품의 주제의식을 형성한다.

주제어: 백석, 백석 소설, 그 모와 아들, 소문의 모티프, 가족공동체, 주제 의식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졸업

## 목차

1. 백석 문학의 출발점, 「그 母와 아들」
2. 소문의 모티프와 봉건적 규범의 재현
3. 가족 공동체와 주제의식의 구현
4. 결론

### 1. 백석 문학의 출발점, 「그 母와 아들」

백석은 시인이다. 그의 시는 그 어떤 시인들의 시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오고 있다. 시인 신경림은 “나는 서슴없이 내 시의 스승으로 먼적(먼저) 백석 시인을 댄다”<sup>1)</sup>라고 밝혔고, 평론가 김현은 『남신의주유동박씨봉방』을 두고 “한국시가 낳은 가장 아름다운 시의 하나”<sup>2)</sup>라고 평가했다. 유종호 또한 “낙백한 영혼이 펼쳐 보이는 이 폐시미즘의 절창이 한국 최상의 시의 하나”<sup>3)</sup>라고 지칭할 정도이다. 그런 만큼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분단 이전 발표된 시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백석은 1930년 조선일보 신년현상문예에 단편소설로 등단하였으며 이후 시뿐만 아니라 단편소설과 수필, 동화시, 번역, 평론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남겼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백석의 초기작들이 대부분 소설이었다는 점이다.

백석은 19세 되던 해인 1930년에 등단작인 소설 「그 母와 아들」을 발표하고 조선일보의 장학생으로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이후 1934년에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수필 「해빈수첩」을, 이듬해인

1) 신경림, 『시인을 찾아서』, 우리교육, 1998, 258면.

2)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219면.

3) 유종호, 「한국의 폐시미즘」, 『비순수의 선언』, 민음사, 1995, 123면.

1935년에 단편소설 「마을의 유화」(7.6~20), 「닭을 채인 이야기」(8.11~25)를 한 달 간격으로 연재한 뒤 끝이어 시 「정주성」(8.31)을 발표한다.<sup>4)</sup> 1942년작으로 알려진 또 다른 단편소설 「사생첩의 삽화」<sup>5)</sup>를 제외한다면 그의 소설들은 대부분 이 시기에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그 母와 아들」은 백석 문학의 첫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문학 수업을 받기 전에 발표한 유일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도 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귀국 후 발표한 두 편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몰입론적인 상상력<sup>6)</sup>이 배제된 현실주의적인 소설이다.

1930년 당시 한국의 단편소설은 이미 1920년대의 김동인, 염상섭, 현진건 등에 의해 그 기초가 확립되고 무르익은 시기였다.<sup>7)</sup> 이

- 4) 고희진, 『정본 백석 시집』, 문학동네, 2007, 345면에 수록된 백석 연보 및 김재용, 『백석 전집』(개정증보판), 실천문화사, 2011, 633-638면에 수록된 작품 연보 참조.
- 5) 이 작품은 문예 계간지 <미네르바> 2008년 가을호에 소개되었는데 고서 수집가 문승목씨가 발굴한 것으로 1942년 2월1일자 <사진순보>에 수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배판(210mm×297mm) 잡지 2개면에 걸쳐 게재된 이 작품은 주인공 '나'가 평양에 사는 젊은 화가 친구의 그림첩을 보면서 그 중 두 점의 제작 뒷얘기를 듣는 내용이다. 하나는 "큼직하고 하이얀 새에게서 방금 내 앞에 새빨간 피가 뽕뽕 쏟아지는 것처럼 너무도 진실에 방불한 피가 흘러내리는 그림"으로, 종족을 지키려 살기(살쟁이)에게 덤빈 게우(거위)의 죽음에 감동한 화가가 그 시체를 방으로 가져와 사생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당나귀 한 마리가 웃고 싶을 앞에 오리와 봉어가 높고 앉고 한 것"을 표현한 그림으로, 화가는 자연을 벗 삼아 선하게 살아 '당나귀'라고 불렀던 주막 주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렸다고 설명한다. : 이상의 내용은 한국일보 2008년 8월 19일 기사 <백석 네 번째 단편 '사생첩의 삽화' 햇빛>을 참조하였다. 해당 기사와 문예 계간지 <미네르바> 2008년 가을호에는 작품 제목이 「사생첩의 삽화」라고 표기되어 있으나(계간 <미네르바>, 2008년 가을호, 4-6면 참조) 이는 원제목에 한자로 표기된 挿話を 한글로 잘못 옮겨 놓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도현은 이 작품이 '단편소설'로 발표되었으나 백석이 자신의 체험과 특이한 에피소드 위주로 구성한 수필에 가깝다고 평가한 바 있다(안도현, 『백석 평전』, 다산책방, 2014, 266면 참조).
- 6) 두 작품 모두 의인화된 대상들이 등장하며, 직접 인물의 역할을 담당하며 서사 속에 개입하고 있다.
- 7) 1920년대의 단편소설이 이론 미학적 성취에 관해서는 다양한 문학사적 연구를

들이 개척한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양식적 특징의 성취 - 염상섭의 「만세전」에서 빛을 발하는 주체 설정을 통한 내면의 탐색<sup>8)</sup>, 김동인의 여러 초기 단편들에서 시도됐던 창작방법론과 새로운 서술 특성들<sup>9)</sup>, 현진건의 「고향」에서 이루어 낸 사실적인 묘사와 「운수 좋은 날」의 플롯의 정교함<sup>10)</sup> 등 - 와 견주어 볼 때 백석의 「그 母와 아들」은 그다지 눈길을 끌지 못한다. 가령, 보여주기(showing 혹은 mimesis)의 방식보다는 말하기(telling 혹은 diegesis)의 방식이 주를 이루는 서술로 인해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인물이 실감나게 형상화되지 못한다거나 작품의 후반부에서 갈등 해소의 계기가 불분명한 상태로 서사가 마무리됨으로써 작품이 다루고 있는 욕망의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sup>11)</sup> 아울러 백석의 시에서 토속적인 느낌의 청각영상으로 한국시의 언어를 감각적이고 풍성하게 만들어준

통해 상세하게 밝혀진 바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1920년대 단편소설은 내면성의 확립을 통한 근대적 주체의 형성과 다채로운 기법의 발전을 축으로 하는 리얼리즘의 확대로 평가되고 있다.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 민음사, 2002.;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사 1』, 문학과지성사, 2012.

- 8) 김휘정, 「『만세전』과 근대성」, 『여성문학연구』 Vol.7,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192-216면.
- 9) 강현국, 「김동인의 창작방법론과 그 실천 : 1920년대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77호, 국어국문학회, 2016, 275-305면.
- 10) 김성수, 「현진건 소설의 리얼리즘 - 「운수 초흔 날」, 「고향」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Vol.3, 반교어문학회, 1991, 246-260면.
- 11) “인물의 간접제시방법에 의해 등장인물의 성격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다든 서사적 긴장감이 결여됨으로써 주제나 전망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말았다. 한 과부의 욕망과 그에 얽힌 현실 문제를 다루기에 약관의 백석으로서 역부족이었다고나 할 것이다.” : 한명환, 「백석 소설 연구 - 소설 내용 및 형식의 특성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No.128, 국어국문학회, 299면. 한명환은 「그 母와 아들」이 김동인의 「감자」와 유사하게 과부의 성욕과 사회적 현실이 이뤄내는 삶의 비극성을 드러낸다고 보면서 위와 같이 평가하였다. 본고에서도 이 작품의 형식에 대한 비평적 견해에는 동의하나 「그 母와 아들」이 갖는 의미는 바로 김동인의 「감자」와는 다른 주체의식에 있다고 보고 그 세부 내용을 탐구하고자 한다.

방언의 아우라<sup>12)</sup> 또한 이 작품에서는 그만큼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동시대 단편소설의 주류적 특성에 견주어 그 문학적 성취를 살피는 비평적 접근보다는 백석의 문학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작가론적 관점의 접근이 유용해 보인다. 백석 소설에 대한 기존 연구들 역시 작가론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백석 시의 ‘서사성’을 중요하게 논의하면서도 정작 소설가로서의 백석의 가치를 간과함으로써 전체적인 백석문학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한계”<sup>13)</sup>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한명환의 연구가 있다. 한명환은 타자에 대한 공감을 백석 소설의 특성으로 제시하였으며 “등장 인물의 성격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데다 “주제나 전망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sup>14)</sup>하고 있다는 비평적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이밖에도 훼손된 공동체와 그 복원을 밝히고 있는 강외석의 연구<sup>15)</sup>, 백석의 소설을 산문이란 틀 속에서 살피고 있는 송기섭의 연구<sup>16)</sup>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주제에 대한 탐구라는 측면에서 윤리적 비판과 공동체의 회복에 각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들 두 항을 연결 지어 살피고 있지는 못하다. 본고는 이 작품을 ‘육망’이나 ‘악습’에 대한 비판

12) 백석은 초기 시에서 표준어의 통사 구조를 지키면서도 평복방언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였다. 그의 시에 나타나는 이러한 토착어 지향성은 구어체의 표현과 결합되어 생동감을 높이고 토속적인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고조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 김명인, 『한국 근대시의 토착어 지향성 연구 : 1930년대 시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Vol.25,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6, 280-281면 참조.

13) 한명환, 『백석 소설 연구 - 소설 내용 및 형식의 특성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No.128, 국어국문학회, 294면.

14) 위의 글, 299면.

15) 강외석, 『일제하의 사회 변동과 문학적 대응 - 백석의 시와 소설을 중심으로』, 『배달말』26호, 배달말학회, 2000.

16) 송기섭, 『백석의 산문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Vol.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1999.

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지나치게 표층적이란 관점이며, 공동체의 회복 또한 윤리적 관점을 넘어 백석 문학을 연속성 있게 파악하도록 해준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와 소설의 장르적 특성에 근거한 고찰을 들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시와 소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서정적인 것은 자신을 고백하는 주체의 표현이며 서사적인 것은 세계의 객관성을 표현하려는 정열로부터 온다”<sup>17)</sup>는 점이다. 하이데거 또한 산문적 정신이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이라면 시적 세계는 ‘대지의 은폐’<sup>18)</sup>, 즉 외부 세계를 자신의 내면 풍경 안으로 끌어당기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소설은 세계를 드러내는 일에 천착하는 장르이다.

그러나 소설 역시 당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소설의 허구성이란 더 이상 현실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진단하면서도 형식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때<sup>19)</sup> 백석의 소설을 통해 시인 백석이 당대의 어떠한 현실에 주목했으며 그러한 현실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만들어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문학은 삶에 대해 던지는 질문이라고 흔히 말해진다. 이러한 문학의 문제 제기적 성격은 특히 서사 장르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다. “소설은 특수한 상황들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감각을 풍부하게 하는 강력한 수단”<sup>20)</sup>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른바

17) 이는 헤겔이 『미학』에서 정의한 서사와 서정 장르의 고전적인 개념이다. : 밀란 쿤데라 저, 권오룡 역, 『소설의 기술』, 민음사, 2008, 192면.

18) 하이데거의 ‘대지의 은폐’는 역설적으로 세계를 개진하는 예술작품의 근거를 설명하기 위함이며(마르틴 하이데거 저, 오병남·민형원 역, 『예술작품의 근원』, 예전사, 1996, 19-44면 참조), 김수영은 이를 ‘세계의 개진’과 짝을 이루어 사용하고 시에 있어서의 모험과 연결시켜 시정신과 산문정신의 길항이라는 변증법적 인식을 한다(김수영, 『김수영 전집2』, 민음사, 2012, 398면 참조).

19) 김혜영, 『소설 장르의 허구성 연구』, 『현대소설연구』 21,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55면 참조.

작품의 주제라고 언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작가가 구축한 서사적 현실 속에서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이러한 주제의식과도 연결된다. 특히 우리에게 시인으로 잘 알려진 백석이 현실주의 소설을 통해 제기한 윤리적 질문을 탐색하는 작업은 그의 시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는 백석을 그저 시인으로만 평가하고 소설을 백석 문학의 습작으로 간주하는 평가를 넘어 소설 속에 백석 문학의 원형이 존재하며, 이를 규명함으로써 백석 문학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그 母와 아들」에 나타난 현실 인식과 주제의식을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소문의 모티프가 작품을 구성하는 주요한 축으로 등장하는데 그러한 소문을 유통하는 공동체와 대별되는 가족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백석의 시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친족공동체의 의미를 한결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가족공동체가 선택하는 서사의 결말을 통해 백석이 당대 현실에 대해 어떠한 비판적인 인식을 지녔는지 좀 더 명확히 변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소문의 모티프와 봉건적 규범의 재현

「그 母와 아들」은 바람난 과부의 이야기이다. 시간적 배경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인물들이 쓰는 방언과 ‘영성장’<sup>21)</sup>이 선다는

20) 개리 솔 모슨·캐릴 에머슨 저, 오문석·차승기·이진형 역, 『바호친의 산문학』, 책세상, 2006, 68면.

21) 영성장은 삼수군三水郡(함남 북서단에 있는 군. 동쪽은 갑산군·해산군, 서쪽은 평안북도 후창군, 남쪽은 풍산군·장진군, 북쪽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만주의 장백현과 경계함)의 1921년의 시장인 중평장·영성장·상기장·삼덕장 등에서의 영성장이거나 1941년의 5일 정기장 중 하나인 호인면 영성장(5·10일장)과 판

표현으로 미루어 이북지역의 작은 농촌 마을을 공간적 배경으로 함을 알 수 있다. 시공간적 배경이 서사에서 특정한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대의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성에 무게를 두고 읽어도 무방할 것이다. 오히려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소문’의 모티프이다. 서사는 ‘동리 우물터’에서 아낙네들이 주고받는 소문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을 사람들이 ‘끓어 졌던 과부의 헛소문’을 주고받는 것으로 끝난다. 이러한 소문은 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꾸준히 등장하면서 그것을 형성하는 담화 공동체의 존재를 상기시킨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지리적인 의미의 공간적 배경보다는 소문을 생성하고 유통시키는 마을 공동체로서 동네(동리)라고 볼 수 있다.

소문은 이 작품에서 압축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서사의 도입부에서는 중심 사건과 인물들이 동네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인상적으로 제시된다. ‘대감이 엄매’가 ‘양고새’라는 인물과 늦바람이 나고 그로 인해 가족들 - 대감과 대감 할머니(로친네) - 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즐거리가 구수한 방언의 대화를 통해 전해진다. 소문의 담화 속에는 이러한 정보 외에도 그 사건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복합적인 심리가 투사된다. 여자들은 양고새와 바람이 난 과부가 장에서 옷감을 끊어 오는 것에 대해 “나는 한번 못 그랬지 내레 민주(바보)야 아니 그런 돈을 나는 한번 못 받아 봤지 하…… 하 아이구원”(14면)<sup>22)</sup>과 같은 대화를 통해 약간의 부러움과 그보다 더 강한, 자신의 도덕적인 우월감을 드러낸다. 이어지는 남자들의 대화에서는

런이 있지 않을까 싶다. : [네이버 지식백과] 삼수군 [三水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2) 본고에서 『그母와 아들』의 본문을 인용할 경우 백석 저, 김문주·이상숙·최동호 엮음(2012), 『백석 문학전집2』, 서정시학 판본을 참조하여 해당 도서의 본문 면수만 괄호 안에 표기하는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뜻풀이가 필요한 단어의 경우 “거쟁이(남편)”과 같이 괄호 안에 뜻을 기재하여 덧붙이고자 한다.



더러 양고새와 과부를 걱정하는 발언도 나오지만 그것이 순수하게 걱정하는 마음의 표현인지는 확실치 않다. 발언의 양태와 진실성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소문의 시의성과 공공성일 것이다. 때로는 이야기기가 모두 소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소문의 정착과 확산은 공동체 내에서 화자와 청자의 공감대를 토대로 형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소문은 계층적 무의식과 상응하며,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현재를 인식하고 미래를 욕망했는가를 보여주는 데 유용하다.<sup>23)</sup>

「그 母와 아들」에서 소문의 서사적 기능은 바람난 과부와 양고새의 관계가 공동체의 도덕적 감각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각기 다른 이유로 얼마간의 부러움을 유발한다는 양가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 작품은 공동체가 상정한 성도덕이 붕괴되는 현실을 단순히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정 정도 인간의 내밀한 욕망과 연결되어 있음을 놓치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소설은 단순한 상황이 아닌 '특수한' 상황들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감각을 풍부하게 해주며 이 작품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과부와 양고새는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문제적인 상황을 추동해가는 것일까? 마을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과부에게는 그러한 관계가 얼마간의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한다. “광목을 반통이나 쓴허오”(14면)고 “거쟁이(남편) 살았을 적보다”(13면) 입성이 좋아졌으며 “전에 업는(없는) 덤심(점심)을 먹게 되고 쌀이 떨어질 때가 업시 그득하니 채워지곤 하”(15면)는 것이 어미덕인 줄은 아들인 대감도 알고 있는 터이다. 쌀장수 양고새의

23) 손혜민, 「소문에 대응하여 형성되는 “신여성”의 기표 - 나혜석의 단편 「경희」(1918)를 중심으로」, 『사이(SAI)』 Vol.7,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9, 145면 참조.

집에 드나들면서 “다른 동리사람이 맞지 못하는 좁쌀을 그냥 마터”(17면)가게 된 것처럼 양고새와의 관계란 가난한 농가의 생계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벌어야 몇 닢 벌겍소 정참 집에 좀 잇수”(18면)라고 권하는 대감의 말은 양고새로 인해 얻게 되는 경제적인 혜택이란 생활을 좀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지 생계를 좌지우지하는 수준의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그보다는 “굶어도 집에 잇지 놈들 시비 듯기 실타”(18면)는 시어머니의 말에서 공동체의 시선이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된 후에도 잠시 가슴이 찢릴 뿐 “량심도 시비도 다정에는 행복하고 마는 것이 과부”(19면)라는 점이 중요하다. 남들의 시비, 주변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일탈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대감의 아비가 죽은 지 삼년이 되 엿숨에 그 동안 날어나는 성욕의 충동”(20면)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양고새에게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아들 볼 생각”(19면)에 있다. 그는 이 마을에 오기 전부터 “남의 집 며누리를 돌이나 바려”(16면)준 전력이 있는 간악한 인간이다. 따라서 그는 “이제게 맘을 두고 단니는 과부 한아 가튼 것은 아모 것 힘들 것”(19면)없이 농락할 수 있다. 그런 그가 평소 눈여겨보고 있던 과부와 “본부분처”(20면)같이 지내고자 한 것은 아들을 얻고자 함이 우선이었다. 물론 이후 어느 정도는 “아들 보자는 그 생각보다도 형락(향락)이 더 큰 목덕(목적)”(20면)이 되기도 하였으나 과부를 첩으로 맞아 함께 살려는 마음 같은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두 사람이 문제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이면에는 서로 조금씩 다른 욕망들이 착중되어 있다.

이러한 욕망의 중층성은 서사의 향방에도 영향을 준다. 과부의 임신의 기점으로 이 두 인물의 관계는 끝을 향해 나아가는데 각자의 욕망이 소멸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는 양상도 달라진다. 과부에 대한 양고새의 욕망은 과부의 임신과 함께 끝이 난

다. 그에게는 애초 규범의 위배에 대한 죄의식도, 공동체의 질타어린 시선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으므로 별다른 변민 없이 과부를 마을에서 내보내고 오로지 출산만을 기다린다.

그러나 과부의 욕망은 몇 단계의 혼란을 더 거친 후에야 정리가 된다. 우선 세간의 시선, 즉 공동체의 도덕을 위배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실감한다. 그 결과 사회적인 규범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을 밀어붙이던 과부의 사회적 자아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도망치듯 마을을 떠난다. 홀로 고립된 자신에게 음식만을 보내줄 뿐 하루밤도 찾아오지 않는 고새의 마음을 깨달은 이후 그녀의 욕망은 서사 속에서 자취를 감춘다. 욕망이 사라진 자리를 가득 채우는 것은 죄의식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뿐이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은 두 사람이 공동체의 질서를 함께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동체가 두 사람에게 부과하는 비난의 무게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소문의 중심에서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며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과부이며 과부의 행동이 심해질수록 동네의 시비도 더 커진다.

동리에서는 “이제야 팔난봉인데 난봉이야”

“삼십과부 난봉나면 야단이지”

이런 소리로 과부의 상판에 춤(침)을 뱉을 듯이 놀렸다. 흥측한 사내들은 이 과부의 궁둥이를 찔러다니게 되었다. (19면)

동리에서는 이 과부 하나를 두고 그 우수수 찌들음이 여간이 아니었다. (21면)

동네 사람들뿐 아니라 과부의 가족들도 고새에 대한 비난보다는 과부에 대한 원망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장면만이 전경화되어 있다. 이들이 과부를 원망하는 이유는 집안의 이름을 더럽히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와 부끄러움 때문이다. 정절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간악한 양고새에게 농락당하는 것보다 체면이 손상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대감이와 대감이의 할머니도 제 매누리가 제 어미가 벌서 집에 과부어미 과부며누리로 잊지 못할 것을 짐작하였다. 그리고는 남이 송하다 하고 그들은 한탄할 뿐이었다. (중략) 어서 하로라도 이 과부가 집을 쫓나 솟새 남의 종이 되든 첩이 되든 제 아비 제 아들의 죽은 일흠을 들추기 안키를 바랐다. (21-22면)

이에 비하면 고새에 대한 마을 공동체의 비난이나 언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딱히 드러나지 않는다.

동리 었던 영감은 미리부터 고새란 간악한 놈인 것을 알고 “젊은 과부가 일이 날까보다”하였다. (17면)

이 같은 차이를 통해서 이들이 속한 공동체의 윤리가 봉건적인 사회 질서와 무관치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도 ‘정절’이라는 단어가 몇 차례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인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덕목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편을 잃은 여인이 평생 수절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열녀문을 세워 그러한 행위를 장려하는 유교적 질서에서 볼 때 똑같은 일탈 행위의 주체일지라도 여성에게는 더 거센 비난이 가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마을 공동체에도 이러한 규범이 내면화되어 있으며 그러한 규범을 위반하는 한 과부는 언제까지나 소문의 중심에 있게 되는 것이다.

과부가 임신하여 마을을 떠난 소문이 고새마누라의 귀에까지 들

어렸지만 그녀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은 것도 이러한 봉건적인 규범의 영향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고새의 욕망은 얼마간의 성적 쾌락을 동반하기는 하나 그 근본에는 부계혈통의 계승을 강조하는 전통적 가족제도에서 비롯된 남아선호사상(男兒選好思想)이 자리하고 있다. 남아선호사상은 아들을 못 낳는 부인을 내쫓을 수 있다는 칠거지악(七去之惡)의 규범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고새마누라가 과부의 임신 소식을 듣고도 언성을 높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딸만 셋을 낳은 죄인이라는 봉건적인 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백석이 이 작품을 쓰던 1930년대 무렵의 농촌 사회에서는 여전히 유교적이고 봉건적인 윤리의식이 지배적인 규범으로 내면화되어 있으며 한편으로는 그것을 위반하는 개인의 복잡다기한 욕망과 충동이 요동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백석의 소설은 이러한 복합적인 현실과 욕망의 양상들을 단순화시키지 않고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술자가 양고새를 악인으로 설정하고 고새의 내면에 있는 불순한 의도를 상술하는 반면 과부의 행동에는 어느 정도 정상을 참작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내포작가 백석은 이러한 봉건적 질서의 무게보다는 개인의 욕망에 조금 더 애정 어린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다. 서사 후반부에서 양고새와 과부가 딸을 낳은 것이 봉건적인 남아선호사상의 좌절을 상징한다고 본다면 근거 없는 확대해석만은 아닐 것이다.

백석은 「정문촌旌門村」<sup>24)</sup>과 같은 시편을 통해서도 “유교적 질서

24) 주홍칠이 낳은 정문<sup>旌門</sup>이 하나 마을 어구에 있었다// '효자조적지정문<sup>孝子處通之正門</sup>—문지가 겹겹이 얹은 목각<sup>木刻</sup>의 액<sup>額</sup>에/ 나는 열 살이 넘도록 갈지자<sup>字</sup> 둘을 웃었다// 아카시아꽃의 향기가 가득하니 꿀벌들이 많이 날어드는 아침/ 구신은 없고 부형이가 담벽을 띠종고 죽었다// 기왓골에 배암이 푸르스름히 빛난 달밤이 있었다/ 아이들은 쪽재피같이 먼 길을 돌았다// 정문<sup>旌門</sup>집 가난이는 열다섯

가 제 기능을 상실한 시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sup>25)</sup>준 바 있다. 이러한 작품과 나란히 두고 볼 때 소설 『그 몸과 아들』이 봉건적 윤리에 대한 일정한 거리두기와 비판적인 인식을 근저에 두고 있음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특히 3장에서는 이러한 비판의식이 결국 꺾인한 현실 속에서 가족의 유대를 통해 이어지는 삶의 근원적인 본질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 3. 가족공동체와 주제의식의 구현

이 작품은 성욕을 비롯한 인간의 욕망이 거침없이 추구되고 또 좌절되는 과정 속에서 상처 입고 변화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스피노자는 욕망이란 우리들이 의식하는 충동이라고 하였다. 그가 정의하는 충동은 자신의 유지에 유용한 것에서 생겨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도록 하는 인간의 본질 자체이다.<sup>26)</sup> 다시 말해서 욕망이란 인간이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의식적인 행위이며 인간에게는 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나 개개인의 욕망과 그가 속한 삶의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자유롭게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욕망 앞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 욕망을 인정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 혹은 욕망이란 통제의 대상인가 아닌가 하는 판단들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예/ 늙은 말꾼한테 시집을 갖겠다// : 고희진, 『정본 백석 시집』, 문학동네, 2007, 62면

25) 김종태, 『백석 시에 나타난 절망』, 『한국문예비평연구』 48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5, 38-39면 참조.

26) 베네딕트 데 스피노자 저, 강영계 역, 『에티카』(개정판), 서광사, 2012, 164-165면 참조.

「그 母와 아들」의 과부는 서사의 중반부까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인물이었다.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남매를 키우며 사는 여인의 삶에서 남편과 같은 존재는 여러 모로 필요하고 절실했을 것이다. 따라서 과부의 욕망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욕망의 대상이 양고새라는 점인데 과부는 스스로 그러한 문제와 자신에게 가해질 사회적 비난에 대해서 몇 차례 돌아볼 계기를 맞지만 이내 외면하고 욕망에 자신을 맡겨 버린다. 그러던 과부가 급격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계기는 개천다리 집으로 옮겨 가게 되면서 “제가 하여온 일을 사람 압해 내어놓게 된 것을 생각”(22면) 하게 된 순간이다. 자신의 가족이나 고새 가족의 비난보다, 그들에게 상처를 입힐 것보다 세간의 시선이 더 두려운 것이다. 과부가 떠난 후 대감마저도 “제 어미의 그 더러운 시비를 닷는 것보다 차라리 깨끗이 업서진 것이 나았”(23면)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여기까지 인물들의 행위를 지배하는 것은 마을 공동체의 시선과 질서로 보인다. 반면 양고새의 경우 이러한 세상의 시비조차 과히 신경 쓰지 않는 예외적인 인간이다.

그러나 인물들의 내적·외적 갈등은 과부의 임신과 출분을 계기로 변화를 겪게 된다. 그 변화의 계기가 분명하게 제시되지는 않지만 다음의 인용은 과부의 빈자리가 대감의 가족들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음을 짐작케 한다.

전가트면 대감이 있으나 업스나 한자리에서 가티 밥을 먹든 어미가 살아 리별을 했거니 하면 누구에게 도리켜야 될지 알 수 업는 원통한 것과 울분한 것이 치밀어 슬그먼이 눈물이 괴이곤 하였다. 대감의 할머니도 아들 생각 그리고 집 생각 뒤섞여 나는 생각의 비애에 울어 늙은 얼굴이 부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대감의 아래로 어린것들이 울고불고 하였을 것도 말할 것이 업섯다. (24면)

이런 사정은 과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개천다리로 도망치듯 옮겨 와 혼자 살게 된 후부터는 전 남편과 집안 생각이 나고 집에 돌아가 시어머니와 아들들을 데리고 농사를 짓고 싶은 생각에 사무친다. 과부 가족들이 보여 주는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서사 전체에서 커다란 전환점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순간들은 다음 인용에서와 같이 이후 대감과 대감의 할머니가 자신들이 비난하고 항의해야 할 대상이 양고새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대감은 갈수록 더 화가 올랐다. 드디어 일어서 작택이를 들고 고새의 집으로 달다라갔다. 대감의 할머니도 일어섰다. 대감의 누이동생 둘 아우 하나 모다 일어서 대감의 뒤를 쫓아 올랐다. 여섯 사람은 고새네 집에 들어갔다. 넓은 뜰의 방석에 모깃불이 부텄다. 대감은 작택이로 뜰을 싸리며 “이놈아! 야 이놈아” 통곡이 터져나왔다. 작대기로 고새를 하나 후려갈겼다. 고새는 일어나 작택이를 잡고 대감을 붙잡는다. (25면)

밤은 깊었다. 사람도 하나 둘 헤어졌다. 그러나 대감이의 인간(가족)을 갈 줄을 몰랐다. 이 자리에서 찌지라는 듯이 움추리지 않았다. 그들의 울음에도 믿음이 있섰다. 닭이 꼬꼬울 때에 으슬렁으슬렁 집으로 돌아와섰다. 고새도 어이없서 모든 것이 누워서 여섯사람의 살을 찌어 먹은 것처럼 제가 사람가지 않은 생각에 잠을 못 일우었다. 이후로는 대감이도 다시는 고새에게 행악을 하지 않았다. 고새도 기운이 죽어졌다. (26면)

대감의 가족과 양고새의 대립은 두 번째 인용문에서처럼 구체적인 대화나 충돌이 없이 침묵으로 항의하는 지점에서 오히려 극적인 감정을 고조시킨다. 이 작품 속 여느 서술과 달리 서술자가 인물에게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행위를 기술하는 ‘보여주기’의 방식을 장면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야 고새는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일이 ‘여섯 사람’, 즉 대감의 가족 모두에게 깊은 상



처를 주었음을 깨닫고 뉘우친다. 수치심도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던 고새에게 죄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자리 잡은 것이다. 대단한 복수도, 대단한 뉘우침도 아니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그들은 적어도 예전과 똑같은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그들은 성장하거나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 장면이 서사적으로 의미 있는 이유이다.

작가가 선택한 변화 혹은 성장은 대감에게서 눈에 띄게 일어났다. 바람난 어미를 부끄러워하는 수치심의 단계에서 벗어나, 어미와 함께 잘못을 저지른 간악한 고새에게 자신들의 상처와 울분을 표출하며 항의한 후, 다시 어미를 찾아 온전한 가족의 상태를 회복하는 과정의 중심에는 대감이 있다. 대감의 가족들이 과부를 다시 받아들인 구체적인 사연은 서사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동네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대감의 의지가 강했음을 짐작해 볼 따름이다.

“제 어미 제 색기 다릇슴”  
 “다르쿠 말구 그것도 에미라구”  
 “그러케 색기가 조태디”  
 “그러케 에미 구실을 하구두 넘치 있나”  
 “제 에미 제 색기 무슨 일 있갓게”  
 “대감이두 머리가 큰 것이 그 에미 안이면 못살갓기에 그르  
 케 망신을 하구두 또 가티 있나” (27면)

서사의 앞부분에서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에 밀착하여 그들의 생각을 전달하던 방식을 구사하던 것과 달리 서사의 뒷부분에서는 이처럼 인물에게서 거리를 둬으로써 독자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 그것은 대감의 가족이 동네에서 사십 리나 떨어진 마을로 이사를 갔다는 물리적 거리감과 조용하며 서정적인 여운을

남기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서술태도의 변화로 서사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질적인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이 작품이 당대의 단편소설에 견주어 볼 때 높은 비평적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 또한 이러한 이질감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낙차는 욕망이 밀물처럼 밀려들어오던 전반부와 욕망이 쓸려간 자리에 해변 농가의 은은하고 조용한 삶이 들어선 후반부의 차이와는 적절히 조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작품은 여성의 욕망 추구가 처참한 죽음이란 극단적 결말로 귀결되는 김동인의 『감자』와 같은 작품과는 구별되는 주제의식을 나타낸다. 무엇보다 그러한 주제의식은 서사의 후반부에서 이루어진 가족공동체의 입장 변화와 서사적 공간의 이동을 통해 구현된다.

후반부가 지닌 서정성과 모호함은 전반부에서 부각된 욕망의 추구하고 좌절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인물을 기존의 질서에 편입시켜 버리는 인상을 준다. 한 번의 일탈이 있을 후 과부는 충실한 어머니이자 며느리로 변하여 기존의 봉건적인 가치에 더욱 충실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부가 돌아간 곳은 대감의 가족이 살고 있던 원래의 마을이 아니었으며 마을 공동체의 규범의식을 따르던 가족이 아니라 자신을 대신해 양고새에게 항의했던 가족이라는 점에서 기존 질서로의 단순한 회귀와는 구별된다.

이 소설에서 욕망의 추구하고 좌절에 대해 보다 정교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현실의 면밀한 탐구라는 소설의 장르적 특징에 비추어볼 때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어쩌면 그런 불분명함이 삶의 본질적인 면모일지도 모른다. 인생의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그것을 남김없이 이해하고 해소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삶은 다 이해하지 못한 문제들을 끌어안거나 남겨둔 채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과부의 욕망을 이해하고 그것을 가로 막는 사회적 규범의 무게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욕망이

좌절된 인간이 훼손된 인생을 끌어안고도 가족과 함께 다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더 무게가 실린 듯하다.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이 잔잔한 여운을 남기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화가 복됐군”

“별변두 다 있다”

“그 과부 난봉날 적에야 누구레 저럴 줄 알았겠소”

“글세 말이지”

(중략)

“그 과부 팔자도 무던해”

“그런 팔자가 또 어디 잇겠게”

“이제 잘살면 또 팔자야”

“팔자구 말구! 넷말 하겠수다”

(중략)

이러케 동리에선 또 끈허졌든 과부의 헛소문이 터졌다. 그러나 과부와 대감의 귀에는 이런 소문이 들릴 리가 업섯다. 그들은 그 후론 오직 농막에서 자고 깨고 할 뿐이었다. 과부의 헛소문도 슬슬 녹아버리고 과부나 고새나 오직 곱비 - 그 어린 것을 새에 둔 - 슴흔 팔자를 서로 호을로 한숨으로 되엿슬 것이다. (28면)

위에 제시된 소문의 대화 속에는 과부가 지금껏 저지른 인생의 과오를 문제 삼지 않고 현재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미래의 삶을 잘 이어간다면 그것으로 더욱 행복할 것이라는 기원과 덕담이 담겨 있다. 이 지점에서 소문의 서사적 기능은 그저 틀에 박힌 윤리의식을 유지하는 기제가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그 균열을 암묵적으로 승인함으로써 현실을 이어가게 하는 동력으로도 확장된다. 과거보다는 현재를 보고, 현재의 가능성을 근거로 미래를 축복하는 태도는 긍정적인 것이다. 그래야만 욕망이 좌절된 인생도, 일탈로 인해 훼손된 인생도 남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은 삶의 면면(綿綿)함과 같은 긴 여운을 형성하는데 그것이 이 작품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작가가 포착한 현실의 단면을 질료로 하여 새롭게 만들어내고자 했던 의미란 봉건적 규범의식의 틀에 갇히지 않는, 따뜻한 가족공동체 안에서 면면히 이어지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뀌 말하면 따뜻한 가족공동체란 아무런 갈등 없이 존재하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훼손된 삶을 포용한 채 유지되는 현실적인 공동체인 것이다. 이는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교적 규범과는 구별되는 가치를 함축한다.

#### 4. 결론

백석이 『그 母와 아들』을 통해 재구성한 당대의 현실 속에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그것을 거스르는 인간 욕망의 부딪침이 다채롭게 드러나 있다. 그리고 욕망이 좌절된 인간이 다시 그러한 전통적인 질서 속으로 돌아와 남은 생을 이어가는 모습은 면면하게 이어지는 삶의 본질을 되새기게 한다. 여기서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나 '전통적인 질서'의 의미에는 남아선호사상이나 가부장적 가치관과 같은 구습과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 그리고 가족 공동체의 따뜻함과 집단주의 문화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작품에서 구습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명백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서사의 전반부에서 수치심이나 사회의 비판적인 시선에 의해 움적이던 대감이 그러한 집단적 사고의 틀을 깨고, 어미의 과오를 감싸 안는 가족의 따뜻함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아 백석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바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과부는 봉건적이고 유교적인 사회의 질서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회가 지녔던 따뜻한 공동체성으로 돌

아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것처럼 따뜻한 공동체성이 가족공동체를 통해 구현된다.

백석이 등단한 1930년은 일제에 의한 근대화가 상당히 진행된 시기였지만 그것은 일제의 필요에 의한 부분적인 근대화, 즉 시설과 제도의 근대화에 집중된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제도의 근대성에 비해 삶의 방식에서의 진정한 근대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선의 근대화에서는 오히려 식민통치를 위해 충효사상과 같은 전통적인 인식체제가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지니기도 했다.<sup>27)</sup> 이처럼 왜곡된 근대화란 전통적인 것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며 근대적인 것의 어두운 그늘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당대의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백석이 재구한 전통적인 것이란 근대 이전으로 단순히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화 과정에서 지켜내야 할 긍정적인 전통의 면모임을 시사한다.

이처럼 백석의 첫 소설이자 백석 문학의 출발점인 「그 母와 아들」은 그의 문학 세계가 지닌 전통성과 토속성의 핵심이 무엇인지 가늠케 해주며 그만의 독특한 주제의식인 '삶의 면면함'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한국문학사에서 백석만이 지닌 개성 넘치는 세계를 확인시켜 준다. 특히 서사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서정성은 소설 창작으로 출발한 백석의 문학 세계가 왜 점차 시 창작에 집중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이 작품은 백석 문학의 주 장르인 시와는 다른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주제의식의 측면 등에서 백석 시문학의 특성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그의 소설에 나타난 문

27) 이러한 현상은 '식민지 반봉건성'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박헌호에 따르면 식민지 시대에는 근대화 과정이 왜곡되어 이루어지는 바, 근대화 과정의 많은 부분에서 오히려 봉건적 성격이 유지되거나 강화된다는 것이다. : 박헌호, 『한국인의 애독작품-향토적 서정소설의 미학』, 책세상, 2005, 58면 참조.

체와 언어의 자질을 시어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같은 고유어와 방언이라도 산문에서의 효과와 시에서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후속 연구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참고문헌 ■

### 1. 기본 자료

백석, 「그 母와 아들」, 김문주·이상숙·최동호 편, 『백석 문학전집2』, 서정시학, 2012.

### 2. 단행본

고형진, 『정본 백석 시집』, 문학동네, 2007.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 민음사, 2002.

김수영, 『김수영 전집2』, 민음사, 2012.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김재용, 『백석전집』(개정증보판), 실천문학사, 2011.

박헌호, 『한국인의 애독작품-향토적 서정소설의 미학』, 책세상, 2005.

신경림, 『시인을 찾아서』, 우리교육, 1998.

안도현, 『백석 평전』, 다산책방, 2014

유중호, 『비순수의 선언』, 민음사, 1995.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사 1』, 문학과지성사, 2012.

계리 솔 모슨·캐릴 에머슨 저, 오문석·차승기·이진형 역, 『바흐친의 산문학』, 책세상, 2006.

마르틴 하이데거 저, 오병남·민형원 역, 『예술작품의 근원』, 예전사, 1996.

밀란 쿤데라 저, 권오룡 역, 『소설의 기술』, 민음사, 2008.

베네딕트 데 스피노자 저, 강영계 역, 『에티카』(개정판), 서광사, 2012.

### 3. 논문

강외석, 「일제하의 사회 변동과 문학적 대응 - 백석의 시와 소설을 중심으로」, 『배달말』26호, 배달말학회, 2000, 97-127면.

강현국, 「김동인의 창작방법론과 그 실천 : 1920년대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77호, 국어국문학회, 2016, 275-305면.

고형진, 「백석의 소설과 수필의 판본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Vol.26, 한국

현대문예비평학회, 2014, 83-128면.

김명인, 『한국 근대시의 도착어 지향성 연구 : 1930년대 시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Vol.25,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6, 267-292면.

김성수, 『현진건 소설의 리얼리즘 - 『운수 조흔 날』, 『고향』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Vol.3, 반교어문학회, 1991, 246-260면.

김중태, 『백석 시에 나타난 절망』, 『한국문예비평연구』 48집, 학회, 2015, 33-52면.

김휘정, 『『만세전』과 근대성』, 『여성문학연구』 Vol.7,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192-216면.

김혜영, 『소설 장르의 허구성 연구』, 『현대소설연구』 21,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47-65면.

손혜민, 『소문에 대응하여 형성되는 “신여성”의 기표 - 나혜석의 단편 『경희』(1918)를 중심으로』, 『사이(SAI)』 Vol.7,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9, 141-168면.

송기섭, 『백석의 산문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Vol.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1999, 265-285면.

한명환, 『백석 소설 연구 - 소설 내용 및 형식의 특성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No.128, 국어국문학회, 291-317면.

#### 4. 기타

계간 《미네르바》, 2008년 가을호(통권 31호)

한국일보 2008년 8월 19일 기사 <백석 네 번째 단편 ‘사생첩의 신화’ 햇빛>.



## &lt;Abstract&gt;

## A Study on Baek Seok's Short Story, “The Mother and the Son”

Nam, Ji-Hyun

This study explored Baek Seok's first short story, “Mother and Son,” the reality recognition and the thematic consciousness. Baek Seok is a poet who represents Korean literature. However, Baek Seok's first work was short story and later he wrote various genres such as short stories, essays, children's literature, translations and criticisms. In particular, Baek Seok's early works are mostly focused on novel genres.

“The Mother and the Son” is not only the first starting point of Baek Seok's literature, but the only work published before receiving literary classes in Japan. And “The Mother and the Son” is a work of a realism, unlike other short stories with animated fantasy. In this perspective, there is an authoritarian meaning that poet Baek Seok's reality cognition. “Mother and Son” shows the clash of traditional ways of life such as male preference ideas and patriarchal values and human desire to counter them. And the desperation of a frustrated character returning to such a traditional order leads to a reminder of the nature of the life that leads to the end of life.

Key words: Baek Seok, Baek Seok's short story, rumor as a motif, family community, thematic consciousness



투 고 일 : 2018년 2월 10일    심 사 일 : 2018년 2월 15일-3월 7일  
게재확정일 : 2018년 3월 9일    수정마감일 : 2018년 3월 18일